

현 중2 수능서 '심화수학' 빠져... '절대평가 확대' 미반영 논란

국교위, 2028 대입 개편 권고안 의결... 현행 '문과 수준' 시험만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 '절대평가' 권고... 교육계 등 반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게 되면서 수험생들은 현행 문과 수준의 수학만 시험을 치르게 됐다.

하지만,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 전체 영역에서 절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계 입장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 시민단체는 국교위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부에 전달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교위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능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현재 공통과목인 '수학 I', '수학 II',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선택과목 없이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로 좁혀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과 수준의 수학만 공부하면 된다.

대신 상대·절대평가 병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시안을 유지하되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를 병행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융합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융합과 실생활 응용을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목이 해당한다.

이같은 안이 실현되면 결국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의 난이도가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능으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느슨하게 나온다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지 않고) 고교에서 심층 수학을 이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

전교조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수능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안 이외에 상대평가에 대한 우려와 절대평가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전면 거부됐다"며 "적어도 일부 수능 영역만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끝내지 못한 국교위는 직무불 유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고교 내신에서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대부분 유지한 채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9개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국교위 권고를 두고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할 여력이 거의 없다"면서 국교위가 학교 현장을 모른 채 필요 없는 권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冬心...童心
크리스마스인 25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려인 광주진료소' 올해 2200명 무료 진료

광주시 월곡동 '고려인 광주진료소'에서 올해 한 해 2200여명에 달하는 광주 정착 고려인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

25일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무료진료사업으로 총 44회에 걸쳐 2260명의 고려인동포를 진료했다.

광주진료소는 지난 2018년 3월 광주시와 광주시의사회가 설립한 무료 진료소로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방의학과 등의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가 운영하는 약국도 있다.

고려인이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도록 고려인 청소년이 통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남대·조선대 의대·약대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려인마을이 진료소를 찾는 고려인주민 100명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료 받은 주민 92%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의 이유로는 '진료비 무료' (45%)가 가장 많았고 '통역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설명' (33%), '근접성' (22%) 순이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광주이주 고려인동포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료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중흥2·3동'→'중흥동' 통합 광주 북구 주민 주도 첫 사례

광주시 북구 '중흥2·3동'이 중흥동으로 통합된다.

북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중흥동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흥동은 중흥 2·3동을 통합해 문을 연다.

중흥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중흥 2·3동 청사를 대신해 신축한 중흥동 신청사(연면적 3274㎡)는 지상 1층~3층 규모로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지어졌다.

문인 북구청장은 "중흥 2·3동 행정통합은 주민의 뜻이 기반이 돼 주민 주도로 이뤄진 전국적인 혁신 사례"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흥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

1인 가구·청년 위한 공공주택

국토부,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후복지 조성

광주시 동구 소태역 역세권에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주관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시 동구 소태역 인근 부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시행,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후보지로 광주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후보지는 광주시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만 7000㎡ 공간으로, 공공주택 58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의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중앙도시수용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분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구는 이 공간을 1인 가구와 청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동구가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물론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 및 심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사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거 위기자'에 임시 거주시설

광주 남구, 내년 '옴므 호 안심 돌봄주택' 제공

광주시 남구가 내년부터 재난이 발생해 지낼 곳이 없는 '주거 위기자'에게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남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옴므 호 남구 안심돌봄 주택' 4곳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한국주택공사 소유의 주택 4곳(각 79~82㎡, 원상동 2곳, 백운동 1곳, 방림동 1곳)을 임대해 운영한다. 이용 기간은 7일부터 최대 3개월이며, 한차레(최대 3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

가운데 주거공간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주민이다. 또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된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요양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 중인 환자 및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환자 중 당장 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